

# 經濟學文獻의 半減期 研究

鄭 鎮 植

(漢城大教授)

## 〈차 례〉

- I. 序 論
- II. 先行研究 概觀
- III. 資料의 分析
- IV. 要約·結論 및 提言
- 〈參考文獻〉
- 〈附 錄〉

## I. 序 論

### 1. 問題의 提起

社會가 고도로 産業化함에 따라 科學技術이 急激히 發達하고, 결과적으로 새로운 情報들이 生産, 蓄積되고 있다.

이 새로운 情報들이 대부분은 방대한 量의 既存情報 속에 묻혀 再利用의 기회를 잃고 있다는 사실은 哀惜한 일이다. 情報管理者의 課題는 情報가 生産되어 價値를 보존하고 있는 동안, 그 정보를 최대한으로 잠재적 이용자들에게 露出시켜 利用機會를 확대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第一次적으로 요구되는 知識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情

報利用價値가 얼마만큼씩 減少되느냐 하는 것이다. 즉, 情報價値의 半減期를 測定하는 것이다.

情報價値라 함은 정보의 이용가치를 말하며, 그것은 個別的 情報에 따라 다르다. 그러나 개별적 정보가치의 半減期를 모두 測定한다는 것은 非現實的이며, 有用性도 적다. 따라서 이 방향의 研究는 分野別 情報價値의 平均的 半減期를 測定하는 일에 集中되고 있다. 分野別 情報價値의 半減期는 散發的이기는 하나 이미 國內外에서 많이 測定, 發表되었다.

本 研究의 基本的 假說은 이 分野別 情報價値의 半減期가 利用地域에 따라 差異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또 同一地域에서는 利用者 대부분의 개인적 留學地, 言語 등의 배경으로 형성된 地域別 親疏관계에 따라 半減期는 그 情報의 生産地에 따른 差異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이런 視角에서의 研究는 本人이 調査한 範圍내에서는 거의 없다. 가령 우리나라 經濟學者들의 情報利用 實態에서 나타나는 經濟學 關聯 情報의 半減期는 얼마이며, 그것은 지금까지 提示된 半減期와 어떻게 다른지, 또 前者에 있어서 情報가 生産된 地域(예컨대, 美國, 日本 등)에 따라 差異가 있는지? 이 두 물음에 答하기 위하여 本 研究는 發想된 것이다.

## 2. 研究의 目的

本 研究의 目的은 우리나라 經濟學 研究者들이 그들의 研究에 引用한 文獻을 形態別(單行本, 學術雜誌記事, 報告書類, 기타 文獻) 및 生産地域別, 즉 生産國別로 조사·분석하고, 그 半減期를 測定하여 우리나라에서의 經濟文獻 利用價値 減少現象을 究明, 提示함으로써 效率的 圖書館 奉仕의 基礎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 3. 研究의 範圍와 對象

### (1) 研究의 範圍

本 研究의 目的을 달성하려면, 우리나라 經濟學者들의 研究活動에 寄與한 모

든 情報 또는 文獻을 조사하여, 그 半減期를 測定하여야 하나, 그런 일은 사실상 不可能하다. 그러므로 本 研究에서는 우리나라 經濟學者들의 學術論文 속에 引用된 文獻만을 對象으로 조사·분석하였다. 또 經濟學 論文이 發表되는 國內 媒體만도 多樣하고 많기 때문에 本 研究에 주어진 時間, 其他 制限條件으로 實際로는 標本으로 選定된 다음 3種의 學術雜誌에 掲載된 72편의 論文들에 引用된 1,742個의 文獻을 分析·測定하는데 그쳤다.

- ① 「經濟論集」, vol.20, no.1~4.
- ② 「韓國開發研究」, vol.3, no.1~4.
- ③ 「經濟學研究」, vol.29.

## (2) 研究의 對象

위의 3個 標本誌들을 選定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大學附設 經濟學研究所, 經濟學會 및 經濟問題研究所에서 發行되고 있는 主要 經濟學論文集 20種을 本人이 任意 選定하여 그 리스트를 2個의 研究機關(韓國開發研究院, 産業研究院) 研究者들과 5個 大學의 經濟學 教授들에게 보내고,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雜誌 3種을 지적케 하였다. 회수된 자료를 處理하여 가장 많이 이용되는 雜誌로 나타난 「經濟論集」, 「韓國開發研究」, 「經濟學研究」의 3個誌가 本 研究의 調査對象誌로 選定되었다(〈附錄〉參照). 選定된 3個 調査對象誌의 概要를 적으면 다음과 같다.

### 1) 「經濟論集」: 1962년 12월 創刊, 季刊

經濟發展의 理論的, 實證的 研究를 遂行하여 國民經濟의 안정과 발전을 기하는데 政策的으로 기여할 목적으로 設立된 서울大學校 經濟研究所의 論文集

### 2) 「韓國開發研究」: 1979년 3월 創刊, 季刊

우리나라 經濟社會 全般에 관한 政策課題를 體系的으로 研究하며, 國家의 經濟計劃樹立 및 政策立案을 도울 目的으로 設立된 韓國開發研究院의 論文集, 經濟社會 開發과 관련된 諸般課題를 理論的 및 實證的으로 다룬 論文과 研究資料를 掲載한다.

3) 「經濟學研究」:1952년 創刊, 年刊.  
韓國 經濟學會의 機關誌

#### 4. 研究의 方法

半減期는 본래 核物理學 分野의 概念으로서 “어떤 種類의 放射性 物質 一定量을 구성하는 원자수의 半이 붕괴되어지는 소요시간”이라고 定義된다.

예컨대, 우라늄 239의 半減期는 23.5 분이다. 이 半減期 概念을 처음으로 科學文獻의 利用價値 減少現象을 설명하는데 適用한 사람은 버턴(R. E. Burton)과 케블러(R. W. Kebler)였다.

그들은 出版 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減少되는 文獻의 價値가 시간경과에 따라 減少되는 放射性 物質의 量과 유사하다는데 착안하여, 放射性 物質의 半減期 測定方法을 科學文獻의 半減期를 測定하는데 이용한 것이다. 지금까지 文獻의 半減期測定에 사용되고 있는 一般의 方法은 다음과 같다.

① 特定文獻의 경우는 그 文獻이 뒤에 나타난 다른 文獻들 속에 引用되기 시작하여 生涯中の 全引用 回數에 대하여 꼭 半만큼 引用되는데 경과한 시간을 測定한다.

② 特定分野 文獻全體의 平均的 半減期는 引用된 해당分野 文獻들을 모아 그 年度 順으로 排列하고, 最新文獻으로부터 起算하여 全體 引用回數에 대한 累積比率이 50% 되는 時期 X년의 값을 算出한다.

本 研究는 위 ②의 算出方法에 의하여 行하여졌다. 다만, 調查對象誌로 選定된 「經濟論集」, 「韓國開發研究」, 「經濟學研究」에 게재된 73 편의 論文 속에 인용되어 있는 1,796 편의 引用文獻中 古典主題를 다룬 論文 1편(이속에 48개의 문헌이 인용되어 있음)은 일반성을 결여하였으므로 除外하고, 書誌事項이 不分明한 6개의 문헌도 조사대상에서 除外시켰다. 따라서 실제로 조사에 포함된 文獻은 論文 72 편(「經濟論集」— 23 편, 「韓國開發研究」— 36 편, 「經濟學研究」— 13 편)에 引用된 1,742 개였다.

本 研究에서는 이 1,742 개의 文獻을 形態別, 生産國別로 分析·處理하였다.

## Ⅱ. 先行研究 概觀

### 1. 外國의 先行研究

1960년에 버턴(R. E. Burton)과 케블러(R. W. Kebler)가 核物理學 分野의 放射性 物質 半減期(Half-life) 概念을 적용하여 科學文獻의 壽命減少 速度測定의 可能性을 提示한 후 文獻의 半減期測定은 많은 情報學 研究者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켜, 그 동안 적지않은 이 方向의 研究業績을 出現시켰다. 1963년에 코울(P. F. Cole)은 情報資料의 中位年을 계산하여 雜誌의 利用도와 經過年數가 指數關係임을 밝히고, 다음 해에 日本의 나카모도(仲本秀四郎)는 文獻의 인용빈도가 그 文獻이 發生한 후의 經過年數에 따라 指數曲線이 된다는 사실을 밝히고, 科學技術 分野의 情報利用도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저하된다는 사실도 입증하였다.

얼(P. Earle)과 비커리(B. C. Vickery)는 1965년에 英國에서 刊行된 社會科學 分野의 圖書와 雜誌에서 23,228 개의 인용문헌을 蒐集·分析하고, 도서의 인용이 전체의 70%이고, 英語資料는 전체 도서의 約 90%를 차지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그들은 또 逐次刊行物의 半減期는 6년, 社會科學文獻의 半減期는 9년이며, 그 중 經濟學文獻의 半減期는 7년이라는 사실도 밝혔다.

라인(M. B. Line)은 정보의 數가 一定한 指數(index)로 되어 있다는 假定下에 表面上의 半減期에서 文獻增加의 要素를 제거하여 測定된 修正半減期(corrected-half-life)를 計算하는 方法을 제시하였다.

미야지미끼오(宮地見記夫)는 「經濟學 分野의 引用分析 研究」에서 經濟學關係 文獻에서는 학술잡지가 34%, 도서 59%, 기타 문헌 7%의 분포로 인용되고, 經濟學 文獻의 半減期는 8년으로 測定되었다.

플레처(J. Fletcher)는 經濟學 分野의 學術雜誌 9種을 對象으로 한 引用研究에서 經濟學雜誌의 半減期는 6년이고, 도서는 6년이 넘는다고 분석하였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經濟學雜誌의 半減期를 研究한 3人의 結果가 各其 相



異한 數値를 提示하고 있으나, 이는 研究時期가 다른 점을 감안할 때 文獻半減期는 時代에 따라 變한다는 通說과 一致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經濟學 관련 研究는 아니나 陳(C.C.Chen)은 美國 매사추세츠 工科大学 圖書館의 物理學雜誌 220 種을 對象으로 한 利用實態調査에서 物理學 雜誌의 壽命半減期는 5.5 年이며, 雜誌의 廢棄基準을 14.5 年으로 본 興味있는 結論을 내리고 있다.

## 2. 國內의 先行研究

우리나라에서 科學文獻의 壽命減少에 관한 法則을 이용하여 引用文獻 관계 연구를 시도한 것은 柳京熙氏의 경우가 처음이다.

그는 1969 年과 1970 年의 2 年間に 國內에서 發行된 112 種(221 冊) 속에 발표된 1,514 篇의 논문에 收錄되어 있는 24,724 個의 引用文獻을 分析하였다.

이 研究에서 그는 우리나라 科學者들이 인용한 外國文獻이 全體引用文獻의 87.2 %이며, 國內文獻은 12.8 %에 불과하다는 事實을 밝혔다. 같은 研究에서 國內文獻의 半減期는 1.56 年, 外國文獻의 半減期는 8 年으로 測定되었다.

分野別로는 外國文獻의 價値壽命 半減期가 化學 및 化學工學이 18.47 年, 應用物理學이 11.70 年, 기계 및 금속학이 8.99 年, 農生物學이 7.12 年, 전기 및 전자분야는 3.45 年으로 測定되었다.

申晶媛氏는 1970 年과 1971 年의 2 年間に 우리나라의 3 個 醫學雜誌에 발표된 논문 1,032 篇 속에 16,899 個의 인용문헌을 分析하여 우리나라 醫學分野 研究者들의 外國文獻 의존도와 壽命半減期를 測定하였다.

이 研究에서 밝혀진 事實을 보면, 의학분야 연구자들이 인용하는 文獻은 國內文獻이 11.2 %, 外國文獻이 88.8 %이며, 이 중 日本文獻이 4.5 %, 歐美文獻이 84.3 %라고 밝히고 있다. 인용문헌의 出版國別 半減期는 國內文獻이 4.35 年, 日本文獻이 1.94 年, 歐美文獻이 7.78 年이며, 全體 平均 半減期는 7.75 年이라고 밝히고 있다.

金憲宣氏는 韓國科學技術研究所 圖書室의 化學 및 化工學雜誌 239 種을 對象

으로 1974년 6월 24일에서 8월 24일까지의 두 달 동안 圖書室內에서의 利用實態를 조사한 바 있다.

이 研究에서 그는 英語雜誌가 83.3%, 韓國雜誌가 3.33%로 거의 美國에서 出版된 英語雜誌에 의존하고 있으며, 化學 및 化工學雜誌의 半減期는 3.38년으로 分析하였다.

우리나라 經濟學 分野의 引用文獻 研究는 1978년에 朴貞允氏에 의하여 행하여졌다. 그는 우리나라 經濟學分野 雜誌 3種을 對象으로 1967년에서 1976년까지의 10년간에 發行된 논문 327편 속에 인용된 5,900個의 文獻을 分析하여 經濟學者들의 文獻利用 實態를 提示하고 있다.

이 研究에서 圖書와 逐次刊行物の 比率은 67.2(%) : 30.2(%)로 分析하였고, 言語別로는 韓國語文獻이 16.2(%), 英語文獻이 68.6%라는 사실을 밝히고, 經濟學者들이 英語文獻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고 結論짓고 있다. 同 研究에서 經濟學文獻의 半減期는 9.1년으로 測定되었다.

### Ⅲ. 資料의 分析

#### 1. 引用文獻의 形態別分析

##### (1) 「經濟論集」 속에 인용된 文獻

「經濟論集」 속에 발표된 論文들이 인용하고 있는 文獻들을 形態別로 分析한 結果는 다음의 〈表 1〉에 表示되었다.

「經濟論集」 속에 收錄된 23편의 論文에 인용된 549個의 文獻을 形態別로 分析하면 〈表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單行本 262회(47.72%), 學術雜誌記事 231회(42.08%)로 報告書類와 其他文獻의 10.20%에 비하여 압도적인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資料利用의 減少現象을 표시하는 半減期는 單行本과 學術雜誌記事가 다같이 10.06년이고, 報告書類와 其他文獻은 各各 6.50년과 5.50년으로 양자가 거의

〈表 1〉 「經濟論集」( vol.20, nos.1-4 ) 속에 인용된  
文獻들의 形態別分析

文獻形態	區分	引 用 文 獻		半減期(年)
		引用回數	比 率 (%)	
單 行 本		262	47.72	10.06
學 術 雜 誌 記 事		231	42.08	10.06
報 告 書 類		25	4.55	6.50
其 他 文 獻		31	5.65	5.50
計		549	100.00	

〈表 2〉 「韓國開發研究」( vol.3, nos.1-4 ) 속에 引用된  
文獻들의 形態別 分析

文獻形態	區分	引 用 文 獻		半減期(年)
		引用回數	比 率 (%)	
單 行 本		322	38.20	7.16
學 術 雜 誌 記 事		208	24.67	7.55
報 告 書 類		85	10.08	3.73
其 他 文 獻		228	27.05	5.47
計		843	100.00	

비슷하다.

## (2) 「韓國開發研究」 속에 인용된 文獻

「韓國開發研究」 속에 발표된 論文들이 인용하고 있는 文獻들을 形態別로 分析한 結果는 〈表 2〉에 表示되었다.

36 편의 論文이 인용하고 있는, 843 個의 文獻中에서 單行本이 322 회( 38.20 %)로 가장 많고, 다음이 기타 文獻으로 228 회( 27.05 %), 學術雜誌記事는 208 회( 24.67 %), 報告書類는 85 회( 10.08 %)의 順이다. 引用文獻들의 半減期는 「經濟論集」에서의 경우와 같이 單行本과 學術雜誌記事가 거의 비슷하나 「經濟論集」에 인용된 文獻보다 約 3 년 짧게 測定되었다. 報告書類는 3.73 년으로 價値壽命이 가장 짧게 나타나고 있다.

〈表 2〉에서 特히 其他 文獻의 引用이 많은 比率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이 雜



誌를 發行하는 研究所의 性格上 研究者들이 年報類나 統計資料에 많이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믿어진다.

### (3) 「經濟學研究」 속에 인용된 文獻

「經濟學研究」 속에 발표된 論文들이 인용하고 있는 文獻들을 形態別로 分析한 結果는 〈表 3〉에 表示되었다.

〈表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單行本이 185 회(52.86%), 學術雜誌記事가 112 회(32.00%)로, 이 兩者는 전체 인용회수의 約 85%를 차지하여 經濟學 研究者들이 報告書類(20 회, 5.71%)와 기타 文獻(33 회, 9.43%)에 비하여 훨씬 많이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半減期는 가장 긴 것이 單行本(11.43년)이고, 기타 文獻은 2.08년으로 가장 짧게 測定되었다.

〈表 3〉 「經濟學研究」(vol.29) 속에 引用된 文獻들의 形態別 分析

文獻形態	區 分	引 用 文 獻		半 減 期 (年)
		引 用 回 數	比 率 (%)	
單 行 本		185	52.86	11.43
學 術 雜 誌 記 事		112	32.00	9.50
報 告 書 類		20	5.71	8.50
其 他 文 獻		33	9.43	2.08
計		350	100.00	

### (4) 論 議

3種의 조사대상지에 인용된 文獻을 形態別로 綜合한 結果는 〈表 4〉에 表示되었다. 表에 나타난 인용상황을 보면, 單行本이 769 회(44.14%), 學術雜誌記事가 551 회(31.64%), 報告書類가 130 회(7.46%), 其他 文獻이 292 회(16.76%)의 順으로 인용되고 있다.

文獻의 利用價值 減少速度를 表示하는 半減期는 單行本이 9.08년, 學術雜誌記事 8.89년, 報告書類와 其他文獻은 各各 4.75년과 4.86년의 順으로 밝혀져 單行本과 學術雜誌記事의 利用價值는 比較的 오래가며, 報告書類와 其他文獻은

〈表 4〉

引用文獻들의 形態別 綜合 分析

文獻形態	區分	引 用 文 獻		半減期 (年)
		引用回數	比 率 (%)	
單 行 本		769	44.14	9.08
學 術 雜 誌 記 事		551	31.64	8.89
報 告 書 類		130	7.46	4.75
其 他 文 獻		292	16.76	4.87
計		1,742	100.00	

〈表 5〉

本 研究의 分析結果와 先行研究들의 分析結果에 나타난 形態別 引用文獻의 半減期 比較

文獻形態	研究者	宮 地 見記夫	얼 과 비커리	플 레 처	朴貞允	本 研究	備考
單 行 本		8	7	6 年 以 上	7.9	9.08	
學 術 雜 誌 記 事				6		8.89	
報 告 書 類				( 調 查 對 象 에 서 除 外 )		4.75	
其 他 文 獻				( " )		4.87	

急速히 不用化됨을 알 수 있다.

〈表 4〉를 利用者의 觀點에서 볼 때에는 우리나라 經濟學研究者들은 대체로 單行本과 學術雜誌記事를 오랜 기간 研究의 基本資料로 活用하고 있으며, 報告書類나 其他文獻에 대한 의존도는 微微함을 알 수 있다.

위의 形態別 綜合分析 結果를 先行研究들과 比較·分析하면 〈表 5〉와 같다.

〈表 5〉에 比較된 半減期를 보면 國內의 唯一한 先行研究인 朴貞允의 測定結果(單行本 9.75 年, 學術雜誌와 報告書類를 포함한 其他文獻 7.9 年)와 本 研究에서 測定된 結果 사이에는 큰 差異가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의 經濟文獻 半減期를 外國에서 測定된 結果와 比較할 때에는 거기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즉, 우리나라에서의 經濟文獻 半減期가 美國, 英國, 日本 등에서의 그것보다 상당히 길다. 半減期라는 것이 본래 文獻의 實際價值가 아닌 研究者들의 利用價值 減少速度를 表示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文獻들이 신속히 入手되는지, 또는 利用可能한 文獻이 많은지 적은지에 따라 地域別로 이러한 差異는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文獻의 半減期는 해당 文獻의 利用地域別로 測定하여 利用하여야 하며 다른 나라에서 測定된 結果만으로 奉仕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고 본다.

經濟文獻의 半減期를 形態別로 보면, 本 研究에 言及된 모든 研究結果가 例外 없이 單行本, 學術雜誌記事, 報告書類, 其他文獻의 順으로 나타남, 이 順序에는 地域에 따른 差異가 存在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 2. 引用文獻의 生産國別 分析

3種의 조사 對象誌에 引用된 문헌을 形態別로 나누고, 이를 다시 生産國別로 分析하여 國內文獻과 外國文獻의 의존도 및 그 半減期를 測定하였다.

### (1) 「經濟論集」의 生産國別 分析

#### 1) 「經濟論集」속에 인용된 單行本

「經濟論集」속에 發表된 論文들이 인용하고 있는 文獻中 單行本을 生産國別로 分析한 結果는 〈表 6〉에 表示된 바와 같다.

〈表 6〉 「經濟論集」(vol.20, nos.1-4) 속에 引用된 單行本の 生産國別 半減期

區分 生産國別		引 用 文 獻		半減期(年)	備考
		引用回數	比 率 (%)		
韓	國	53	20.23	5.17	
外 國	日 本	14	5.34	11.00	
	美 國	154	58.78	10.40	
	英 國	20	7.63	7.00	
	其 他 國 家*	21	8.02	12.50	
	小 計	209	79.77	10.50	
合	計	262	100.00	10.06	

\* 其他國家: 西獨 9회(3.44%), 프랑스 5회(1.91%), 필리핀 2회(0.76%),  
濠洲 3회(1.15%), 스위스와 소련 各各 1회(0.38%)씩 인용.

262 種의 單行本 가운데 國內文獻은 53 회( 20.23 %), 外國文獻은 209 회(79.77 %)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表 6>의 外國 單行本中에서 美國圖書가 154 회 (58.78 %), 英國圖書 20 회(7.63 %), 日本圖書 14 회( 5.34 %)의 順으로 상당히 높은 비중으로 歐美圖書에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單行本の 半減期는 美國圖書 10.40 년으로 가장 길게 測定되었으며, 日本圖書 11.00 년, 英國圖書 7.00 년이며, 韓國圖書는 5.17 년으로 外國圖書에 比하여 상당히 짧은 것으로 나타나있다. 西獨과 프랑스, 스위스를 포함한 기타國圖書는 12.50 년으로 測定되었다. 外國圖書의 平均 半減期는 10.50 년으로 國內圖書 5.17 년에 比하여, 2 배나 길다는 事實이 밝혀졌다.

## 2) 「經濟論集」 속에 인용된 學術雜誌記事

「經濟論集」 속에 발표된 論文들이 인용하고 있는 文獻中 學術雜誌記事를 生産國別로 分析한 結果는 <表 7>에 要約되었다.

「經濟論集」 속에 인용된 學術雜誌記事 231 회를 生産國別로 分析하여 살펴 보면 英國雜誌記事가 9 회( 3.90 %), 기타 國家雜誌記事가 23 회( 9.96 %) 인용되어 있다. 學術雜誌記事의 半減期는 英國雜誌記事가 18.50 년, 美國雜誌記事 11.42 년으로 單行本の 경우와 마찬가지로 國內雜誌記事의 半減期 5.67 년보다 2 배 以上 길게 분석되어 이들 雜誌記事가 상당히 오랫동안 우리나라 經濟學者

<表 7> 「經濟論集」( vol.20, nos.1-4 ) 속에 引用된 學術雜誌記事의 生産國別 半減期

區分 生産國別		引 用 文 獻		半減期(年)	備 考
		引用回數	比率(%)		
韓	國	32	13.85	5.67	
外 國	日 本	없 음			조사대상이된 일부 논문 의 性格으로 인함.
	美 國	167	72.29	11.42	
	英 國	9	3.90	18.50	
	其 他 國 家	23	9.96	4.42	
	小 計	199	86.65	10.64	
合	計	231	100.06	10.06	

\* 其他國家: 네덜란드 18 회( 7.79 %), 西獨 2 회(0.87 %), 멕시코, 스위스, 프랑스 各各 1 회 ( 0.43 %)씩 인용.

들에 의하여 利用되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

### 3) 「經濟論集」 속에 인용된 報告書類

「經濟論集」 속에 발표된 論文들이 인용하고 있는 文獻中 報告書類를 生産國別로 分析한 結果는 〈表 8〉에 要約되어 있다.

引用된 25 個의 文獻中 國內報告書類가 13 회(52.00%), 美國報告書類가 12 회(48.00%)이며, 다른 나라의 것은 전혀 인용되지 않았다. 이 두 나라 報告書類의 半減期는 다같이 6.50 年으로 測定되었다.

### 4) 「經濟論集」 속에 인용된 기타 文獻

「經濟論集」 속에 발표된 論文들이 인용하고 있는 文獻中 기타 文獻을 生産國

〈表 8〉 「經濟論集」(vol.20, nos.1-4) 속에 引用된 報告書類의 生産國別 半減期

生産國別		區分	引用 文獻		半減期(年)	備考
			引用回數	比率(%)		
韓 國			13	52.00	6.50	
外 國	日 本		없 음			
	美 國		12			
	英 國		없 음			
	其 他 國 家		없 음			
		小 計	12	48.00	6.50	
合 計			25	100.00	6.50	

〈表 9〉 「經濟論集」(vol.20, nos.1-4) 속에 引用된 其他文獻의 生産國別 半減期

生産國別		區分	引用 文獻		半減期(年)	備考
			引用回數	比率(%)		
韓 國			30	96.77	5.67	
外 國	日 本		없 음			1 個의 文獻으로 半減期 決定은  의미가  없음.
	美 國		1	3.23		
	英 國		없 음			
	其 他 國 家		없 음			
		小 計	1	3.23		
合 計			31	100.00	5.50	



別로 分析한 結果는 〈表 9〉에 要約되어 있다.

〈表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引用된 기타文獻中 國內文獻이 30 회(96.77%)로 거의 全部였으며, 半減期는 5.67 년으로 分析되었다. 外國文獻은 美國文獻이 단 1個 뿐이다.

## (2) 「韓國開發研究」의 生産國別 分析

### 1) 「韓國開發研究」속의 인용된 單行本

「韓國開發研究」속의 발표된 論文들이 인용하고 있는 文獻中 單行本을 生産國別로 分析한 結果는 〈表 10〉에 要約되었다.

單行本이 인용된 총 322 회를 生産國別로 分析하면 美國圖書가 156 회(48.45%)로 가장 많고, 國內圖書가 91 회(28.26%), 日本圖書와 英國圖書가 各各 26 회(8.07%)와 24 회(7.46%)로 거의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國內圖書의 인용은 91 회(28.26%)인데 비해 外國圖書의 인용은 231회(71.74%)이므로 우리나라 經濟學者들은 그들의 研究活動에 있어서 外國圖書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單行本の 半減期는 美國圖書 10.62 년, 英國圖書 12.50 년으로 外國圖書의 平均 半減期는 9.78 년이다. 이는 우리나라 經濟學 研究者들이 오래된 外國圖書, 특히 美國과 英國圖書를 상당히 오랫동안 계속 이용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말해주

〈表 10〉 「韓國開發研究」(vol.3, nos.1-4) 속의 인용된 單行本の 生産國別 半減期

生産國別	區分	引用文獻		半減期(年)	備考
		引用回數	比率(%)		
韓	國	91	28.26	2.85	
外 國	日 本	26	8.07	6.75	
	美 國	156	48.45	10.62	
	英 國	24	7.46	12.50	
	其他國家	25	7.76	8.17	
	小 計	231	71.74	9.78	
合	計	322	100.00	7.16	

고 있는 것이다.

### 2) 「韓國開發研究」 속에 인용된 學術雜誌記事

「韓國開發研究」 속에 발표된 論文들이 인용하고 있는 文獻中 學術雜誌記事의 生産國別 分析 結果는 〈表 11〉에 要約되었다.

〈表 11〉을 보면, 총 208 회의 인용 학술잡지기사 중 美國雜誌記事가 139 회 (66.83%)로 전체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으며, 日本雜誌記事는 3회(1.44%)로 가장 적게 인용되었다. 學術雜誌記事의 半減期는 美國雜誌記事가 8.94년, 英國雜誌記事 11.00년, 韓國雜誌記事는 2.35년으로 測定되었으며, 西獨, 프랑스를 포함한 기타 國家雜誌記事는 5.50년으로 測定되었다. 國內外 學術雜誌記事의 引用分布는 國內雜誌記事가 17.79%인데 비해 外國雜誌記事는 82.21%로 압도적이며, 國內外別 半減期를 보면 國內雜誌記事가 2.35년, 外國雜誌記事는 9.42년으로 후자가 전자보다 약 7년 더 길게 測定되어 學術雜誌記事의 인용에서도 外國雜誌記事가 國內雜誌記事보다 長壽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韓國開發研究」誌에 인용된 學術雜誌記事의 平均 半減期는 7.55년이다.

### 3) 「韓國開發研究」 속에 인용된 報告書類

「韓國開發研究」 속에 발표된 論文들이 인용하고 있는 文獻中 報告書類의 生産國別 分析結果는 〈表 12〉에 要約되었다.

〈表 12〉에서 알 수 있듯이 「韓國開發研究」에 收錄된 論文이 인용하고 있는

〈表 11〉 「韓國開發研究」(vol.3, nos.1-4) 속에 인용된 學術雜誌記事의 生産國別 半減期

生産國別	區分	引用文獻		半減期(年)	備考
		引用回數	比率(%)		
韓	國	37	17.79	2.35	
外 國	日 本	(3)	(1.44)		[기타국가에 포함]
	美 國	139	66.83	8.94	
	英 國	24	11.54	11.00	
	其 他 國 家	5	2.40	5.50	
	小 計	171	82.21	9.42	
合	計	208	100.00	9.55	

〈表 12〉 「韓國開發研究」( vol.3, nos.1-4 ) 속에 인용된 報告書類의  
生産國別 半減期

生産國別		區分	引用文獻		半減期(年)	備考
			引用回數	比率(%)		
韓國		韓國	34	40.00	2.50	
外國	日本	日本	(1)			「기타 국가」에 포함시킴 「기타 국가」에 포함시킴
	美國	美國	37	43.53	4.30	
	英國	英國	(1)			
	其他國家	其他國家	14	16.47	5.50	
		小計	51	60.00	4.50	
合計		合計	85	100.00	3.73	

\* 其他國家: 스위스 9회(10.59%), 필리핀 2회(2.35%), 日本, 英國, 캐나다가 각각 1회(1.18%)씩 인용됨.

報告書類 85 회 가운데 韓國의 報告書類 34 회( 40.00 %)와 美國의 報告書類 37 회( 43.50 %)가 전체의 84 %를 차지하고, 스위스의 報告書類가 9 회( 10.59%), 필리핀의 報告書類가 2 회( 2.35 %), 日本과 英國의 報告書類가 각각 1 회씩 인용되었다.

報告書類의 半減期는 美國의 報告書類가 4.30 년, 國內의 報告書類는 國內의 單行本이나 學術雜誌記事에서와 비슷한 2.50 년, 日本과 英國, 스위스를 포함한 其他國家의 報告書類는 5.50 년으로 測定되었다. 國內報告書類의 半減期는 2.50 년이며, 外國報告書類의 半減期는 이 보다 2 년이 더 긴 4.50 년으로 밝혀졌다. 同誌에 인용된 報告書類의 平均 半減期는 3.73 년이다.

#### 4) 「韓國開發研究」 속에 인용된 기타 文獻

「韓國開發研究」 속에 발표된 論文들이 이용하고 있는 文獻中 기타 文獻의 生産國別 分析結果는 〈表 13〉에 要約되었다.

年報類를 포함하는 其他文獻의 인용에서 同誌는 韓國資料를 199 회( 87.28 %)나 인용하여 주의를 끄나, 이것은 「韓國開發研究」를 發行하는 研究院에서 일하는 研究者들이 우리나라의 經濟動向 分析 및 豫測에 관련된 各種 統計資料를 기초자료로 活用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본다.

〈表 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韓國資料의 인용이 압도적이고, 日本資料는 19

〈表 13〉 「韓國開發研究」( vol.3, nos,1-4 ) 속에 인용된 其他文獻의 生産國別 半減期

生産國別		區分	引用文獻		半減期(年)	備考
			引用回數	比率(%)		
韓國			199	87.28	5.18	
外國	日本		19	8.33	12.50	
	美國		6	2.63	2.00	
	英國	없음				
	其他國家		4	1.76	3.00	
		小計	29	12.72	7.50	
合計			228	100.00	5.47	

회(8.33%), 美國資料는 6회(2.63%) 인용되고 있다.

기타 文獻의 半減期는 日本資料가 12.5년으로 비교적 길고, 韓國資料는 5.18년, 美國資料는 2.0년이다.

外國資料의 平均 半減期는 7.50년으로 國內資料의 半減期 5.18년에 비하여 약 2년이 더 길며, 國內外를 합한 기타 文獻의 平均半減期는 5.47년이다.

### (3) 「經濟學研究」의 生産國別 分析

#### 1) 「經濟學研究」 속에 引用된 單行本

「經濟學研究」 속에 발표된 論文들이 인용하고 있는 文獻中 單行本을 生産國別로 分析한 結果는 〈表 14〉에 要約되었다.

「經濟學研究」 속에 인용된 單行本 185회를 生産國別로 分析하면 〈表 14〉에 서 보는 바와 같이 國內 單行本이 38회(20.54%)로 나타나고 있다. 外國單行本의 경우는 美國圖書가 126회(68.11%)로 압도적인 비율이고, 英國圖書가 13회(7.03%), 日本圖書가 1회이다. 單行本의 半減期는 美國圖書가 12.80년으로 가장 길고, 英國圖書가 7.75년, 國內圖書가 6.00년으로 測定되었다. 外國單行本의 半減期는 國內單行本의 半減期에 비하여 2배나 긴 11.93년으로 測定되었다.

〈表 14〉 「經濟學研究」( vol.29 ) 속에 인용된 單行本の 生産國別 半減期

生産國別		引用 文 獻		半減期(年)	備 考
		引用回數	比率(%)		
韓	國	38	20.54	6.00	
外 國	日 本	(1)			「기타 국가」에 포함
	美 國	126	68.11	12.80	
	英 國	13	7.03	7.75	
	其他國家*	8	4.32	4.00	
小 計		147	79.46	11.93	
合 計		185	100.00	11.43	

\* 其他國家：西獨 2회(1.08%), 印度 2회(1.08%), 네덜란드 2회(1.08%), 스리랑카, 日本 各各 1회(0.54%)

〈表 15〉 「經濟學研究」( vol.29 ) 속에 인용된 學術雜誌記事의 生産國別 半減期

生産國別		引用 文 獻		半減期(年)	備 考
		引用回數	比率(%)		
韓	國	8	7.14	2.33	
外 國	日 本	(1)			「기타 국가」에 포함
	美 國	70	62.50	11.49	
	英 國	23	20.54	11.50	
	其他國家*	11	9.82	4.75	
小 計		104	92.86	10.67	
合 計		112	100.00	9.50	

\* 其他國家：네덜란드 8회(7.14%), 프랑스, 日本, 이탈리아 各各 1회(0.89%)

## 2) 「經濟學研究」 속에 인용된 學術雜誌記事

「經濟學研究」 속에 발표된 論文들이 인용하고 있는 文獻中 學術雜誌記事를 生産國別로 分析한 結果는 〈表 15〉에 要約되었다.

「經濟學研究」에 인용된 學術雜誌記事를 生産國別로 分析하면 〈表 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美國雜誌記事가 70회(62.50%), 英國雜誌記事가 23회(20.54%), 國內雜誌記事가 8회(7.14%), 네덜란드 雜誌記事가 8회(7.14%), 프랑스, 이탈리아 雜誌記事가 各各 1회이다.



〈表 16〉 「經濟學研究」( vol.29 ) 속에 인용된 報告書類의 生産國別 半減期

生産國別		引用文獻		半減期(年)	備考
		引用回數	比率(%)		
韓國		2	10.00		
外國	日本	없음		10.00	
	美國	16	80.00		
	英國	없음			
	其他國家	2	10.00		
小計		18	90.00	9.00	
合計		20	100.00	8.50	

國內雜誌記事는 8 회 (7.14%)에 불과한 데 비하여 外國雜誌記事는 104 회 (92.86%)나 되어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半減期는 國內雜誌記事가 2.33 년으로 대단히 짧고, 外國雜誌記事는 10.67 년으로 약 5 배나 더 길게 分析되었다.

이 중에서 美國雜誌記事와 英國雜誌記事는 약 12 년으로 거의 비슷하게 測定되었다.

### 3) 「經濟學研究」 속에 인용된 報告書類

「經濟學研究」 속에 발표된 論文들이 인용하고 있는 文獻中에서 報告書類를 生産國別로 分析한 結果는 〈表 16〉에 要約된 바와 같다.

〈表 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同誌의 報告書類 인용은 美國의 報告書類를 除外하면 대단히 微微하여 半減期測定이 事實上 不可能하다. 美國報告書類의 半減期 測定結果는 10.00 년으로 同誌의 學術雜誌記事 半減期와 거의 같다.

### 4) 「經濟學研究」 속에 인용된 其他文獻

「經濟學研究」 속에 발표된 論文들이 인용하고 있는 文獻中 기타 文獻을 生産國別로 分析한 結果는 〈表 17〉에 要約된 바와 같다.

위 3)의 報告書類와 마찬가지로 同誌의 其他 文獻引用도 微微하여, 國內資料를 제외하면 그 半減期 測定이 事實상 不可能하다. 國內의 其他文獻에 대한 半減期 測定結果는 2.00 년으로 대단히 짧은 편이다.

〈表 17〉 「經濟學研究」( vol.29 ) 속에 인용된 其他文獻의 生産國別 半減期

生産國別		區分	引用文獻		半減期(年)	備考
			引用回數	比率(%)		
韓 國			32	96.77	2.00	
外 國	日 本		없 음			
	美 國		1	3.03		
	英 國		없 음			
	其他 國家		없 음			
		小 計	1	3.03		
合 計			33	100.00	2.08	

#### (4) 論 議

3 種의 調査對象誌에 인용된 文獻을 形態別로 綜合하고, 이를 다시 生産國別로 分析하여 그 半減期를 測定한 結果를 〈表 18〉~〈表 21〉에 表示하였다.

##### 1) 單行本의 生産國別 分析

3 個 對象誌에 인용된 文獻 1,742 회 중에서 單行本은 769 회로 전체 인용회수의 44.14 %이다.

〈表 18〉을 보면, 美國單行本이 436 회(56.70 %)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國內單行本이 182 회(23.67 %), 英國單行本이 57 회(7.41 %), 日本單行本이 41 회(5.33 %)의 順으로 나타나 있다. 이를 年度別로 分析한 生産國別 半減期는 美國單行本이 10.97 년, 英國單行本이 10.50 년으로 양국의 單行本 半減期는 거의 비슷하며, 日本單行本은 7.37 년, 國內單行本은 4.30 년, 프랑스, 네덜란드, 西獨 등의 기타國 單行本들은 8.37 년으로 測定되었다. 國內單行本은 182 회(23.67 %) 인용되어 587 회(76.33 %) 인용된 外國單行本에 비하면 約 1:3 의 저조한 비율로 나타나 우리나라 경제학자들의 外國 單行本 의존도를 말하여 준다. 半減期 測定結果는 外國單行本 전체의 平均 半減期가 10.51 년으로 國內單行本의 4.30 년에 비하여 2 배 이상 길게 분석되어 우리나라 經濟學 研究者들이 外國單行本을 比較的 오랫동안 이용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外國單行本 중에서는 日本單行本보다 歐美地域 單行本을 더 오랫동안 활용하는 것으로 나

〈表 18〉

單行本の生産國別半減期

生産國別		區分	引用文獻		半減期(年)	備考
			引用回數	比率(%)		
韓國		國	182	23.67	4.30	
外國	日本		41	5.33	7.37	
	美國		436	56.70	10.97	
	英國		57	7.41	10.50	
	其他國家*		53	6.89	8.37	
		小計	587	76.33	10.51	
合計			769	100.00	9.08	

\* 其他國家 : 프랑스 15 회(1.95%), 西獨 13 회(1.69%), 네덜란드 7 회(0.91%), 濠洲 4 회(0.52%), 스위스와 印度가 各各 3 회(0.39%), 필리핀과 캐나다는 各各 2 회(0.26%), 臺灣, 소련, 이탈리아, 스리랑카 各各 1 회(0.13%) 씩 인용되었다.

〈表 19〉

學術雜誌記事의 生産國別半減期

生産國別		區分	引用文獻		半減期(年)	備考
			引用回數	比率(%)		
韓國		國	77	13.97	2.97	
外國	日本		4	0.73	14.00	
	美國		376	68.24	10.71	
	英國		56	10.16	12.00	
	其他國家		38	6.90	4.50	
		小計	474	86.03	10.15	
合計			551	100.00	8.89	

타나 있다.

## 2) 學術雜誌記事의 生産國別 分析

學術雜誌記事는 모두 551 회 인용되어 전체 인용회수의 31.64%를 차지하고 있다.

이 551 회 인용잡지를 生産國別로 分析한 結果는 〈表 19〉에 表示하였다.

〈表 19〉에 표시된 바와 같이 551 회의 學術雜誌記事 引用 가운데 美國雜誌記事가 376 회(68.24%)로 전체 인용회수의 2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國內雜誌記事는 77 회(13.97%), 英國雜誌記事는 56 회(10.16%), 日本雜誌

記事는 4 회(0.73%) 인용되어 生産國別로 많은 차이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半減期の 測定結果는 日本雜誌記事가 14.00 년으로 가장 길게 분석되었으며, 英國雜誌記事는 12.00 년, 美國雜誌記事는 10.71 년, 國內雜誌記事는 3 년 以內로 外國의 雜誌記事에 比하여 利用面에서 상당히 短命함을 알 수 있다.

### 3) 報告書類의 生産國別 分析

3 個의 조사대상誌 속에 발표된 論文들이 인용하고 있는 報告書類를 生産國別로 分析하면 <表 20>에 要約된 바와 같다. 인용된 報告書類 130 회를 生産國別로 分析하면, 國內의 報告書類 49 회(37.69%) 및 美國의 報告書類 65 회(50.00%)가 전체 인용회수의 大部分을 차지하고 있다.

日本の 報告書類와 英國의 報告書類는 各各 1 회씩으로 其他國에 포함되어 16 회(12.31%)로 분석되었다.

半減期는 國內의 報告書類가 3.38 년, 美國의 報告書類가 5.83 년, 其他國의 報告書類가 4.00 년으로 앞에서 고찰한 다른 形態의 文獻 半減期보다 比較的 짧게 나타났으며, 國內外 報告書類를 合한 平均 半減期는 4.75 년으로 測定되었다.

### 4) 기타 文獻의 生産國別 分析

292 회 인용된 기타 文獻을 生産國別로 分析한 結果는 <表 21>과 같이 表示되었다.

인용된 기타 文獻 292 회를 生産國別로 分析하면, 國內文獻이 261 회(89.38%)

<表 20> 報告書類의 生産國別 半減期

區 分 生産國別		引 用 文 獻		半減期(年)	備 考
		引用回數	比率(%)		
韓 國		19	37.69	3.38	
外 國	日 本	(1)			「기타 국가」에 포함
	美 國	65	50.00	5.83	
	英 國	(1)			
	其他國家	16	12.31	4.00	
小 計		81	62.31	5.50	
合 計		130	100.00	4.75	

\* 其他國家: 스위스 9 회(6.92%), 필리핀 2 회(1.54%), 英國, 西獨, 스리랑카, 캐나다, 日本이 各各 1 회(0.77%)씩 인용됨.

〈表 21〉

기타 文獻의 生産國別 半減期

生産國別	區分	引用 文 獻		半減期(年)	備 考
		引用回數	比率(%)		
韓 國		261	89.38	4.50	
外 國	日 本	19	6.51	12.50	「기타 국가」에 포함
	美 國	8	2.74	2.00	
	英 國	(2)			
	其 他 國 家	4	1.37	3.00	
	小 計	31	10.62	8.50	
合 計		292	100.00	4.87	

%)로 大部分을 차지하며, 日本文獻 19 회(6.51%), 英國文獻 8 회(2.74%), 기타國文獻이 4 회(1.37%)의 順으로 인용되고 있다. 그 半減期는 國內文獻이 4.50 년, 日本文獻이 12.50 년인데 비해 美國과 英國文獻은 各各 2 년과 3 년으로 利用價値의 壽命이 비교적 짧게 분석되었다. 기타 文獻을 分析하여 얻은 外國 其他文獻의 半減期는 8.50 년이며, 國內外 기타 文獻을 合한 292 회의 平均 半減期는 4.87 년으로 測定되었다.

### 5) 生産國別 綜合分析

3 種의 調査對象誌에 인용된 1,742 個의 文獻을 形態別로 나누고, 이를 다시 生産國別로 綜合分析한 結果는 〈表 22〉에 要約된 바와 같다.

3 種의 조사대상誌에 인용된 1,742 個의 文獻을 形態別 및 生産國別로 나누어 綜合·分析한 結果, 文獻의 利用價値 減少現象을 測定하는 半減期는,

- ① 韓國文獻의 경우 單行本 4.30 년, 學術雜誌記事 2.97 년, 報告書類 3.38 년, 기타 文獻 4.50 년으로 전체적으로 約 3.8 년이라는 짧은 기간으로 分析되었다.
- ② 日本文獻은 單行本 7.37 년, 學術雜誌記事 14.00 년, 기타 文獻 12.50 년으로 인용문헌의 수는 적으나, 不用化 속도는 상당히 완만하게 測定되었다(報告書類 없음).
- ③ 美國 文獻은 單行本 10.97 년, 學術雜誌記事 10.71 년, 報告書類 5.83 년, 其他文獻 2.00 년으로, 單行本과 學術雜誌記事는 約 11 년으로 報告書類나 其他文獻에 비해 상당히 오랫동안 研究者들의 研究資料로 活用되고 있음을 알



〈表 22〉

生産國別 半減期の 綜合分析

形態	區分		引用 文 獻		半減期 (年)
	生産國別		引用回數	比率 (%)	
單 行 本 (769 回)	韓	國	182	23.67	} 9.08
	日	本	41	5.33	
	美	國	436	56.70	
	英	國	57	7.41	
	其 他 國 家		53	6.89	
學 術 雜 誌 記 事 (551 回)	韓	國	77	13.97	} 8.89
	日	本	4	0.73	
	美	國	376	68.24	
	英	國	56	10.16	
	其 他 國 家		38	6.90	
報 告 書 類 (130 回)	韓	國	49	37.69	} 4.75
	日	本	(1)		
	美	國	65	50.00	
	英 國 家		(1)		
其 他 文 獻 (292 回)	韓	國	261	89.38	} 4.87
	日	本	19	6.51	
	美	國	8	2.74	
	英	國	(2)		
	其 他 國 家		4	1.37	

수 있다.

④ 英國 文獻은 單行本 10.50 年, 學術雜誌記事 12.00 年으로 美國과 거의 비슷하게 測定되었으나, 報告書類와 기타 文獻은 全無한 상태이다.

⑤ 기타國 文獻에서는 單行本 8.37 年, 學術雜誌記事 4.50 年, 報告書類와 기타 文獻은 國內 文獻과 거의 비슷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우리나라 經濟學 研究者들이 인용한 經濟學 文獻의 形態別 半減期는 單行本이 9.08 年으로 가장 길며, 學術雜誌記事가 8.89 年, 報告書類와 其他 文獻은 各各 4.75 年과 4.87 年으로 짧게 測定되어, 後者가 前者에 비해 그 不用化 速度가 상당히 빨리 전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表 22〉를 參考로 하여 國內外文獻 의존도와 半減期를 綜合하면 〈表 23〉에

〈表 23〉

生産國別 分析에 의한 國內外文獻 半減期 比較

區分 文獻形態	國內文獻			外國文獻			平均 半減期(年)
	引用回數	比率(%)	半減期(年)	引用回數	比率(%)	半減期(年)	
單行本	182	23.67	4.30	587	76.33	10.51	9.08
學術雜誌記事	77	13.97	2.97	474	86.03	10.15	8.89
報告書類	49	37.69	3.38	81	62.31	5.50	4.75
其他文獻	261	89.38	4.50	31	10.62	8.50	4.87
計	569			1,173			

表示된 바와 같다.

기타 文獻의 國內文獻 인용회수를 제외한 모든 分野에서 國內文獻보다 外國文獻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文獻의 半減期도 2倍 以上の 큰 격차를 보여 우리나라 經濟學 研究學者들이 大部分 外國文獻을 背景으로 그들 연구를 遂行하고 있음을 밝혀주고 있다.

#### IV. 要約 · 結論 및 提言

##### 1. 要 約

本 研究는 情報利用價値의 半減期가 ①그 情報를 利用하는 地域에 따라 差異가 있으며, ②같은 地域에서는 利用者 大部分의 개인적 留學地, 言語 등 背景으로 형성된 地域別 親疏관계에 따라 그 情報의 生産地에 따른 差異가 있을 것이 라는 假說을 立證하기 위하여 계획, 수행되었다. 이 假說을 立證하기 위하여 具體적으로 우리나라 經濟學者들이 研究成果를 發表하고 있는 3種의 主要 國內 經濟學專門誌, 즉, 「經濟論集」, 「韓國開發研究」 및 「經濟學研究」를 調查對象誌로 選定하고, 그 속에 게재된 論文들이 引用하고 있는 文獻들을 處理하여, ①經濟學文獻의 形態別, 生産地別 半減期를 測定하고, ②그렇게 測定된 半減期를 다른 나라에서 測定되어 이미 發表되어 있는 經濟學文獻 半減期와 比較하였다.

## 2. 結 論

本 研究를 遂行하고 얻어진 結論을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1) 同一 分野의 情報라도 그것을 이용하는 地域에 따라 利用價値의 半減期에 는 差異가 있다.

그러므로 情報管理의 實際에 있어서 外國에서 測定된 半減期는 도움이 될 수 없다고 본다.

2) 同一地域에서는 利用者 大部分의 개인적 留學地, 言語 등의 배경으로 형성된 地域別 親疏關係에 따라 情報의 生産地에 따른 差異가 있다. 예컨대, 우리나라 經濟學者들의 言語背景, 留學地分布라는 觀點에서 大體로 親熟한 地域인 美國, 英國, 日本에서 生産된 經濟學 文獻들의 半減期는 그들 大部分에서 生소한 「其他國家」(西獨, 프랑스, 臺灣, 멕시코, 스위스, 캐나다, 필리핀, 스리랑카, 네덜란드, 印度, 濠洲 등)에서 生産된 經濟學 文獻들의 半減期보다 길다(Ⅲ-2-(4)). 그러므로 利用者 大部分에게 親熟한 地域文獻은 比較的 長期間 利用者들에게 가까이 露出시켜 利用便宜를 提供하여야 하며, 生疏한 地域에서 生産된 文獻은 老化速度가 빠른 점을 감안하여 蒐集後 단기간에 최대한 利用될 수 있도록 奉仕組織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3) 經濟學分野에서는 國內文獻의 半減期에 比하여 外國文獻의 半減期가 2 倍以上 길다(Ⅲ-2-(4)). 그러므로 外國文獻은 比較的 長期間 利用者들에게 가까이 露出시켜 이용편의를 제공하고, 國內文獻은 可及的 신속히 蒐集하여 단기간에 최대한 利用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必要가 있다.

4) 本 研究에서 測定된 經濟學文獻의 半減期는 單行本이 9.08 年, 學術雜誌 記事가 8.89 年, 報告書類가 4.75 年, 기타 文獻이 4.87 年으로 形態에 따라 큰 差異가 있다. 그러므로 여기서도 위 3)에서와 같은 奉仕 組織上의 배려가 必要하다.

5) 經濟學 文獻의 形態別 半減期는 單行本, 學術雜誌記事, 報告書類, 기타 文獻의 順이며, 이 順序에는 地域에 따른 差異가 없다.

### 3. 提 言

本 研究를 完成시키기 위한 後日의 研究에 參考가 될 수 있도록 研究 수행과정에 認識된 問題領域을 列舉하면 다음과 같다.

- ① 文獻蒐集의 遲滯가 文獻 半減期 測定에 미치는 영향
- ② 利用可能한 文獻의 生産地別 分布와 해당문헌의 生産地別 半減期 사이의 關係
- ③ 利用者의 언어배경과 해당 言語資料 半減期 사이의 關係

#### 〈參考文獻〉

1. 宮地見記夫, “引用文獻から見たわが國經濟學の文獻引用,” 「圖書館界」, vol.22, no.3, 1970, pp.94-98.
2. 金 憲 宣, “科學技術圖書館에 있어서의 化學 및 化工學雜誌 利用實態에 관한 研究”, 成均館大學校 大學院 석사학위논문, 1974, pp.51-52.
3. 朴 貞 允, “韓國經濟學者들의 文獻利用動態-引用分析”, 梨花女子大學校 大學院 석사학위논문, 1978, pp.73-85.
4. 申 晶 媛, “韓國醫學圖書館에 있어서의 圖書選擇方法에 관한 研究”, 「한국비블리아」, 第2輯, 1974, pp.266-295.
5. 柳 京 熙, “科學정보의 壽命測定,” 「도서관」, vol.26, no.7, 1971, pp.4-5.
6. 仲本秀四郎, “資料の老化”, 「ドクメンテーション研究」, 14, June 1964, pp.123-128.
7. \_\_\_\_\_, “資料の壽命”, 「情報管理」, 8, March 1966, pp.32-35.
8. 韓國語辭典編纂會編, 「韓國語大辭典」, 1976, p.652.
9. Burton, R. E. and Kebler, R.W. “The Half-life of some Scientific and Technical Literature”, *American Documentation*, XI, Jan. 1960, pp.18-22.
10. Cole, P. F., “Journal of Usage versus Age of Journal”, *Journal of Documentation*, XIX, Nov. 1963, pp.1-11.
11. Earle, P. and Vickery, B. C., “Social Science Literature Use in the U. K. as Indicated by Citation”, *Journal of Documentation*, vol.25, no.2, 1969, pp.123-141.
12. Fletcher, J., “A View of the Literature of Economics,” *Journal of Documentation*, vol.28, no.4, 1972, pp.283-295.
13. Line, M. B., “The Half-life of Periodical Literature, Apparent and Real Obsolescence”, *Journal of Documentation*, vol.26, no.1, 1970, pp.46-54.

<附 錄> 調查對象誌 選定

<表 1> 利用者에게 配付된 學術雜誌 리스트

學術雜誌番號	誌 名	發 行 機 關
1	經 商 論 集	大邱大. 經商問題研究所
2	經 商 論 集	忠南大. 經營經濟研究所
3	經 商 論 集	韓社大. 經商問題研究所
4	經 商 論 叢	西江大. 經濟經營問題研究所
5	經 營 經 濟 論 叢	東國大. 經營管理研究所
6	經 濟 經 營 研 究	外 大. 經濟經營研究所
7	經 濟 論 集	서울大. 經濟研究所
8	經 濟 論 叢	國民大. 經濟研究所
9	經 濟 研 究	漢陽大. 經濟研究所
10	產 業 斗 經 營	延世大. 產業經營研究所
11	韓 國 經 濟	成均大. 韓國產業研究所
12	農 村 經 濟	韓國農村經濟研究院
13	韓 國 開 發 研 究	韓國開發研究院
14	KDI 分期別經濟展望	韓國開發研究院
15	經 濟 學 研 究	韓國經濟學會
16	農 業 經 濟 研 究	韓國農業經濟學會
17	農 業 政 策 研 究	韓國農業政策學會
18	經 商 論 叢	韓 獨 經 商 學 會
19	經 濟 論 集	韓國國際經濟學會
20	中 小 企 業 研 究	韓國中小企業學會



〈表 2〉

質問紙配付 및 回收狀況

配付된 機關 配付 및 回收	配付 部數	回 收		備 考
		部 數	比 (%)	
대 학	25	20	80	
연 구 원	45	43	96	
계	70	63	90	

〈表 3〉

經濟學 學術雜誌의 利用順位

利用者 所屬機關 學術雜誌 番號	利用順位										
	1	2	3	4	5	6	7	8	9	10	11
서울대				1			5				1
연세대							5			4	2
고려대							2			1	1
성균관대				1			4			1	3
서강대				2			3	1		2	2
한국개발연구원	2	2	3	9	2	2	30	3	2	14	12
産業研究院				2			8			3	6
계	2	2	3	15	2	2	57	4	2	25	27
이용순위	15	15	12	7	15	15	1	11	15	5	4

  

利用者 所屬機關 學術雜誌 番號	利用順位										비 고
	12	13	14	15	16	17	18	19	20		
서울대	1	4	3	4			3				
연세대		4	3	4				1			
고려대		3	1	1							
성균관대		2		3							
서강대		1	2	2							
한국개발연구원	4	28	13	21	3	2	5	4	3		
産業研究院	1	5	2	2				1			
계	6	47	24	37	3	2	8	6	3		
이용순위	9	2	6	3	12	15	8	9	12		

\* 이 學術雜誌 番號는 〈表 1〉의 番號와 同一함.